

연중 제32주일

기도서 474 면

제1독서: 열왕 전 17, 10-16

제2독서: 히 브 9, 24-28

복음: 마 르 12, 38-44(41-44)

숲 정 이

발행	천주교전주교구
편집	출보국
인쇄	관리국

편집실: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0042

□ 강론



좀 더 바칠 수

있으리라

강 덕 행 신부

오늘 복음은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율법학자의 위선을 폭로하는 것이고(마르 12, 38-40) 나머지 하나는 가난한 과부가 자선함에 넣은 렵톤 두개의 가치를 선언하는 가르침입니다(마르 12, 41-44).

여기서 과부의 헌금에 대한 교훈을 생각해 봅시다. 과부는 하느님께 봉헌할 때, 첫째로 기쁘게, 희생적으로 바쳤습니다. 이것은 하느님 나라를 위해 얼마나 희생적으로 바치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희생한다면 지금보다 좀 더 바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은 기쁘게 바치는 자의 예물을 즐거워 하십니다.

둘째로, 참된 봉헌에는 무모의 요소가 포함됩니다. 과부는 가진 것을 다 드렸는데 우리는 생(生)의 전부를 하느님께 바치지 않고 생의 일부, 활동의 일부, 자신의 일부, 소유의 일부를 바칩니다.

셋째로, 우리는 우리의 소유나 자신이 보잘 것 없어 주께 바칠 만한 것이 못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우리의 소유와 자신이라도 다 주께 바치면 하느님은 그것으로 놀랄만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느님과 인간의 측정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참 봉헌은 그 수량이 있지 않고 뒤에 얼마나 남았느냐에 있습니다. 과부의 헌금이 주님의 눈길을 끈 것은 그의 다음 끼니까지 바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의 과부의 봉헌 태도를 보면 우리들의 봉헌 자세는 너무도 부끄러울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은 주일이니까 의무적으로 성당에 나왔고 다른 신자들이 봉헌하니깐 어쩔 수 없어 잔돈을 찾아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빈한하다고 신앙생활마저 빈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2년 후면 한국 선교 200주년의 뜻깊은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각 본당에서는 200주년 기도문을 일출로만 열심히 바치고 있으나 실제적인 행동 즉 교회의 본질이며 모든 신자들의 첫째 사명인 복음 선포와 교회 운영에 적극적인 자세가 아쉬운 실정입니다. 우리 힘으로 복음 선포와 교회의 자립운영을 위해서, 오늘 복음의 과부처럼 다음 끼니까지는 봉헌하지 못할지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생활 봉헌 기도문" -주여, 오늘 하루의 내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를 예수, 마리아의 생활과 합하여 주께 드리나이다. 호수 천신과 주보 성인은 나를 도와 주소서 아멘-을 바치면서 하루를 하느님께 온전히 바치고 하느님과 함께 생활할 지향을 두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좀 더 희생함으로써 하느님께 좀 더 바칠 수 있을 것입니다. (순창성당 주임신부)



이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있다. 「여러 짐승들이 숲속에서 사이 좋게 살고 있었어요. 호랑이도, 사슴도, 토끼도, 다람쥐도...모두 풀잎과 머루를 따먹으며 같이 놀았어요. 참 재미있고 즐거운 숲속나라였답니다.

어느날 호랑이가 몰래 토끼를 잡아먹었어요. 숲속나라 규율을 어기는 일이었지만, 호랑이는 머루와 풀잎보다 토끼의 피와 고기맛이 더 좋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호랑이는 자꾸만 토끼랑 다른 짐승들을 잡아먹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자기의 속마음을 알고 다른 짐승들이 힘을 합하여 자기에게 대들면 자기가 질까봐 속마음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퍼를 내서 짐승들을 한마리씩 만나서 애기했어요. "호랑이는 풀잎만으로는 살 수 없단다. 하지만 너는 잡아먹지 않을테야. 그러니까 호랑이는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숲속나라 새규율에 동의해줘."

어느 날 숲속나라 회의에서 호랑이가 말했습니다. "짐승 여러분, 호랑이는 고기를 먹어야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손드세요.

아무도 손들지 않았어요. 사슴도, 토끼도, 다람쥐도, 여우도 자기만은 잡아먹지 않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숲속나라의 짐승들은 한마리씩 자취를 감추었고, 평화가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답니다.」-참으로 깊이 묵상해 볼만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죽은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묵상해보는 때(위령성월)가 왔다. 구조적인 악의 세력은 야금야금 우리의 목을 조이러 달라붙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현세질서를 쇄신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죽어야 영원히 살 수 있겠는가?

숲 정 이 산책



□ '82 평협 신앙대회 결의문

우 리 의 결 의

천주교 전주교구의 평신도 사도적 일선에 선 우리는, "평신도인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을 우리 자신에게 던지며, 이 문제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기도하였다. 이에 우리는, 이 땅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어 현세 질서를 세신하는 구원 사업이 우리 평신도의 고유한 사명임을 재 확인하였다.

오늘의 우리 현실은, 풀리지 않은 응어리들인 "정치권력의 정통성 문제, 광주사태, 정치활동 규제,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학원사태, 장영자 사건, 소위 '도산' 문제" 등으로 얽혀져 있다. 그동안 명백한 우리의 입장을 천명하기도 했으나, 아직도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 이 모두가 우리의 성찰자료이고, 또한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이기애 스스로를 되돌아 보며, 우리의 입장과 태도를 밝힌다.

1. 조국이 요청하는 국가안보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보장에 그 바탕을 두어야 한다. 이것은 위정자와 국민을 갈라놓는 장벽을 혈음으로써만 가능하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은 겸허한 자세와 성실한 마음 가짐으로 국민에게 봉사해야 한다. 정치 지도자들은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빛어지는 문제들이 모두 파행적인 정치풍토에서 비롯됨을 적시하고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한다.
2. 우리는 불림받은 평신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영성생활에 성실해야 한다. 말씀을 배우고 생활화 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여 평신도 사도로서의 고유의 사명을 다 하자.
3. 우리는 갖가지 어려움으로 소외된 이웃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진리와 정의를 지키다가 고통받는 형제, 인권과 인격의 존엄성을 침해받고 있는 힘 없는 자매, 그리고 병고와 배고픔에 떠는 이웃들이 오늘 우리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자.
4. 이 시대의 요청은 조직적인 사도적이다.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교회 안의 일치를 다지기 위해 평협의 조직 안에서 더 큰 형제애로 하나 되어 일치하자.
5.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불신평조를 극복하는 데에 있다. 우리는 가정을 비롯하여 일터와 내고장, 그리고 교회안에서도 책임 있는 말과 행동으로 신뢰를 회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자.

1982년 10월 31일

'82 전주교구 평협 신앙대회 참가자 일동

□ 위령성월을 맞이하며

연옥의 '정화'

11월은 위령성월이다. 가톨릭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은 연옥에 있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특별한 날을 11월 2일로 정하고 죽은이들을 특별히 기억한다. 우리도 특히 이 한달 동안 우리보다 먼저 가신 선조, 부모, 친척, 은인, 친구들과 죽은 모든 믿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지상에 있는 우리들의 기도를 기다릴 뿐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부들의 저서에 의하면 죽은 신자들이 생존자의 기도 특히 미사성제로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언급이 많다. 고대 비문에 보면 초대 교회에서도 죽은이를 위한 미사가 드러졌다는 것이 나타난다. "우리들과 그리스도 안에 죽은이를 연결하는 유대를 명심하면서 교회는 끊임없이 죽은이를 위해 기억하고 기도한다"(교회 50). 아우구스틴도 성인인은 연옥의 불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 고통스럽다고 한다. 그러나 연옥의 가장 큰 고통은 하느님과 분리되었다는 것이다. 연옥의 영혼은 그제야 하느님의 무한한 선함을 그 전보다 깊이 깨닫고, 잠시라도 자기가 만든 장애로 팔미암아 지복직관을 누리지 못함을 알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그러나 연옥의 영혼은 고통을 당하지만 평화를 느낀다. 이제 구원은 아주 확실하고 하느님은 큰 사랑에서 이 '정화'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는 때문이다. 제노바의 가타리나 성녀는 15세기의 신비가인데 "연옥의 불은 매우 효과적으로 영혼을 태우는 하느님의 사랑이다"라고 썼다. 우리의 기도로 연옥의 영혼들이 천국에 가게 되면 그들의 친구로 우리가 현세를 사는 동안 굳센 믿음으로 천국을 희망하고 형제를 사랑하여 연옥의 '정화'를 거치지 않고 지복직관의 영광에 들게해 주실 것이다.

◆ 협력을 구합니다 ◆

매주일 순정이 4면에 게재되는 각 분당 공지사항이 매주 화요일까지 도착되도록 일요일 오후나 월요일 오전에 발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식의 내용은 간략하게 줄여서 보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유치원용, 교재·교구

중앙 교육사

전화 (72) 1891번

이 승 호(다마소)

위치:전동 터미널 앞

전주 꽃 직매장

진선미 꽃집
꽃꽂이 수강생 모집
조화(종이꽃) 대여

전화 @ 2628

이 마리아(명자)

범 띠또(덕배)

[SS] FASHION 전주 특약점



머 킹 검
로가디스
소사이어터



위 크 엔 드
간 이 북



런 던 포 그
세계적인코트의명문



피 노 키 오
아 등 북



챌 린 저
주 니 어 북

전주시 중앙동 3가
삼화약국 옆 @4451
주인 유 울리안나



□ 교구 사제 연례 피정

8일부터 12일까지 광주 명상의 집에서 교구 사제들의 연례 피정이 있게 된다. 주교님께서서는 모든 신자들에게 다음 사랑을 당부하셨다.

① 피정기간 동안 각 본당에서는 가능한 한 미사대신 말씀의 전례를 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미사 신청을 미리해 주시면 사제들이 피정기간 중에도 봉헌할 것입니다.

③ 긴급한 병자성사나 장례미사 등은 교구청을 통해 은퇴 신부님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피정기간 동안 사제들을 위하여 교우들의 많은 기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 平信徒, 우리는 누구인가?

—교구 평협, '82 신앙대회 마쳐

'82 전주교구' 평협 신앙대회가 1,400여 평신도들이 참가한 가운데 알차게 치루어졌다. 각 본당이나 단체의 제일선에서 뛰는 일꾼들이 참가한 신앙대회에서는 공부(제1부)하고 기도(제2부)하며 일치(제3부)를 다지는 평신도의 모습을 부각시키려는 흔적을 볼 수 있었다.

이날, 초청된 두 강사(김 영환 신부·이 경국 회장)는 "평신도의 고유한 사명·공부하는 평신도·주인으로 사는 평신도의 자세"를 강조하며 참석자들을 일깨웠다. 미사를 집전한 박 주교님은 신앙대회를 통해 자신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평신도들을 크게 치하하였고, 말씀의 전례를 주관한 황 인규 사무처장 신부는 선교 200주년을 앞두고 갖는 이 행사의 의의를 높이 평가했다. 한편 양 상렬 평협회장은 뜻은 날씨에도 성황을 이루어준 참가자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 교구 평협의 조직 안에서 평신도의 사명을 다하자고 호소했다.

늦가을 비에도 흐트러짐 없이 진행된 대회는 함께 노래부르고 춤추는 제3부 행사에서 더욱 분위기를 뜨겁게 했다.

□ 삼례 익산공소에 동정성모회 수녀님 3분 파견

삼례 익산 공소에 3분의 수녀님이 파견되었다. 나환자(음성)를 위해 파견되신 이 가브리엘라 원장 수녀님은 탁아소를 담당하시고, 김 힐라리아 수녀님은 전교를, 진 다미안 수녀님은 환자들의 진료를 맡으셨다. 처음부터 익산 공소를 돌보아 주셨던 이리 성모병원 동정성모회 수녀님들께서 81년 총장님의 익산공소 방문을 계기로 이 공소에 투입하시기 되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시는 수녀님들께 우리 모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늘 가져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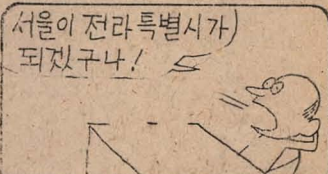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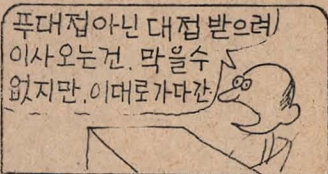
□ 장계 성모병원 정상 운영

우리 교구에 유일한 본당 사업체로써의 장계 성모병원(병원장 김 준호 신부)을 정상 운영하게 됐다.

그동안 상주의사의 부제로 잠시 휴업까지 해야 했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번에 외과 전문의 이 영주(에드워드) 의학박사와 간호수녀님들을 모시게 되어 지난 11월 1일부터 정상 운영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를 계기로 병원 인력을 개편하는 한편, 시설을 확장 보완하고 병원 운영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사랑과 봉사정신에 입각해서 이 지역 산간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게 됨은 물론, 전교에도 큰 효과를 기대하게 됐다. 우리 모두 장계 성모병원의 재출발을 기뻐하며 병원 발전을 위해 기도와 성원을 보내자.

요심이 (483) 김병오



상당수준의 교칙본(체르니, 쓰나타) 소화자에게 악보없을 시도 반주해 낼 수 있는 세미 크라식 반주법의 회소식

짜즈·크라식

피아노 반주법

각 본당 전자오케 구입시 상담 및 협조해 드립니다.

섬악 : 음대 지망자나 가요계 지망자

전화 ④ 3770

이일규(알로이시오)

※ 구 역전과 전교중간 사거리 전복은행 노송동지점 앞

실내장식·조경·가옥수리
건축일절·페인트

화석 인테리어

전화 ④ 0265

이 종화(바오로)

김 명석(스테파노)

□ 각종 신발 도산매

새마을 신집

숙녀화·아동화·특수화

남부시장 제일새마을금고 앞

김 문식(베드로)

금·은·보석·시계

결혼예물을 하시는 교우에게는 혼배반지를 기념으로 기증함

보석장

군산경찰서 전복은행 앞

전화 ⑤ 6603

한 철 재(비오)

컴퓨터를 배웁시다!

프로그래밍·키판치 과정

대상 : 고졸이상의 남녀

개강 : 매월 10일

전주 컴퓨터 학원

문의전화 ⑤ 2805번

전복은행본점위아리랑재과옆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교구 사제 연례 피정 : 8일<월>~12일<금>, 장소-광주 예수 고난회 명상의 집
2. 전주지구 올드레아 : 10일 오후 7시 30분, 장소-전동 천주교회
3. 5지구 청년 체육대회 : 7일, 장소-상관 천주교회
4. 1지구 교리교사 윌레회 : 7일 오후 2시, 장소-원평 천주교회
5. 4지구 중·고등학교생 성가 경연대회 : 14일<월> 오후 2시, 장소-중앙성당

(중앙)

전화 ①7111~3
 주임 신부 문정현
 수석 보좌 박인호
 보좌 선부 박인호
 사도 회장 김인협

- ※ 성경읽기 : 리도서 전편·에제키엘 47장
1. 사도회 상임위원회 : 11월 6일(토) 오후 7시30분
 2. 연도대회 : 오늘 오후 2시 강담
 3. 베소라 성서연구 : 19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9시, 교재대 : 월 2,000원
 4. 부활반 교리 개강 : 14일부터 목요일 오후 7시30분 주일 오전 11시30분
 5. 성심부녀회 : 5일
 6. 병자방문 : 9일
 7. 공소미사 : 7일 오후 3시
 8. 9월 복자반 : 자진 찾아가세요(사무실)
 9. 성전 신축 헌금 인입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정인섭·김연우·강완식·이완규(각 20만원), 임주남(15만원), 이선희·오제성·오준자(각 30만원), 박현숙·김기섭·변길애·최효순·장창기·김윤진·백금순·유인기·김만재·박승배·최복순(각 10만원), 김정자(16만원), 장남수·김철·김정규·장은순(각 50만원), 안예숙(6만원), 최영희·박화순(1만원), 김복재(2만원) 총누계 : 96,523,000원
 감사헌금 : 윤영근 10,000원
- 지난주 봉헌금 : 824,386원 교무금 : 715,300원

(노송동)

전화 ①0969
 주임 신부 김용태
 수.사 ②7032 보좌 선부 박성팔
 사도 회장 이흥재

1. 신부님들의 피정 : 8일-12일, 말씀의 전례로 거행
 2. 신년도 사업계획서 제출 : 각 분과 및 제단체에서는 14일까지
 3. 애령회 정기총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형제회 및 자모회 윌레회 : 오늘 공식미사 후
 5. 교부금 속히 완납 : 교부금 46% 수납, 10월말 현재
 6. 전화번호 접수 : 사무실에서 접수
 7. 차주의 전례담당
 새벽미사 : 해설-은경순, 독서-①서요한 ②문정숙
 공식미사 : 해설-김영옥, 독서-①김광춘 ②김유자
 저녁미사 : 해설-박은경, 독서-①박환주 ②이미경
 공식미사 : 기도 봉헌-박춘근, 이정은
- 지난주 봉헌금 : 269,786원 교무금 : 469,000원

(덕진)

전화 ③2182번
 주임 신부 김봉희
 보좌 선부 안철문
 사도 회장 양상열

1. 신부님 연례 피정 : 8-12일, 금주 평일미사는 없음
 2. 사도회 윌레회의, (상임위원회) : 각 분과위원장님들께서는 꼭 참석 바랍니다
 3. 분당 판공성사실
 구역 방문시 저녁 평일미사 후에 보시기 바랍니다
 15~19-덕진 전지역, 22-26 송천 전지역, 29~3. 팔복동 전지역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 각 단체-해당분과에 각 분과-21일까지 제출 바람
 5. 집 주소가 변경된 분 : 오늘까지 사무실에 연락 바람 가정방문시 필요한
 6. 각 공소미사 : 매월 2째주-전당리, 3째주-이산리 1째주-내동리
- 지난주 봉헌금 : 404,170원

(북자)

전화 ②5238번
 주임 신부 권영교
 사도 회장 조성호

1. 사도회 : 오늘 공식미사 후
2. 주일학교 소풍 : 오늘 9시미사 후 출발
3. 신부님들 피정 : 8일<월>~12일<금>까지 광주에서

4. 가정방문 : 6일-태평5·6반, 18일-태평7·8반, 19일-진북1·2반
 5. 유아세례 : 14일(주일) 오후 4시
 ※ 3시 반까지 대부분과 같이 와서 준비 바람
 6. 학생회 성가 경연대회 : 14일, 많은 교우들 참석바람
 7. 금주전례 : 해설-최정순, 독서-①김성원 ②송영자
 차주전례 : 해설-김재식, 독서-①유기순 ②박상기
- 지난주 봉헌금 : 322,580원

(서학동)

전화 ②2276번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활인구

1. 사도회 윌레회 : 오늘 공식미사 후
 2. 반장님 모임 :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3. 푸리아 모임 : 다음 주일 오후 2시 회의실
 4. 자모회 모임 : 9일<화> 오전 10시 자모님들 참석바람
 5. 성심회 모임 : 13일<토> 오후 2시 성당 회의실
 6. 축! 결혼 : 오늘 오전 11시30분, 장소-서학동 성당
 신랑-이병근(베드로), 신부-손미애
 7. 다음주 전례담당 : 독서-①김한기 ②김수길
- 지난주 봉헌금 : 215,566원 교무금 : 227,000원

(윤정이)

전화 ⑦3366 주임 신부 김종길
 수.유 ⑧9567 사도 회장 김수협

1. 사도회 윌레회 : 오늘 공식미사 후
 2. 성령기도회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
 3. 예비자 교리 : 매주 공식미사 후
 수요일 오전 7시와 오후 7시30분
 4. 결진 : 12월 12일 대상자 사무실에 신청
 5. 금주전례 : 해설-이귀래, 독서-①송용호 ②백시환
 기도-이강노·임경주
 6. 차주전례 : 해설-이귀래, 독서-①고재권 ②김종안
 기도-강원모·김정숙
 7. 미사안내 : 금주-이경희·권영숙·서숙자·정금순
 차주-권은순·최윤희·김귀선·김숙현
- 지난주 봉헌금 : 360,800원

(전동)

전화 주임 신부 김병열
 사무 ⑥2222 보좌 선부 박준두
 수.사 ⑧347 사도 회장 이종두

1. 사도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2. 유아세례 : 오늘 8시30분 미사 후
 3. 자모회·장우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본당 11월 28일 결진 있음
 교리-22일~27일 저녁미사 후, 신청-사무실
 5. 본당 미사 없음 : 8일 저녁~12일 저녁(사제피정)
 6. 가정방문 일정 : 16일~19일-풍납동
 23일~26일-전동·서교동
 7. 성령세미나 : 14일~21일, 저녁 7시~9시, 강당
 8. 성서강의 : 매주 공식미사 후, 양현홍 선생님 지도
 대상-영세 예정자와 영세자
 9.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 해설-박종주, 독서-①김동연 ②범덕배
 공식미사 : 해설-양현홍, 독서-①신일균 ②백종흠
 저녁미사 : 해설-김윤주, 독서-①경양수 ②김동수
- 지난주 봉헌금 : 533,640원

(파티마)

전화 주임 신부 김영일
 주.너 ④4804 사도 회장 활희상

1. 어머니 성가대원 성가연습 :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2. 로사리오의 모후 푸리아 회의 : 오후 2시
 브레시디움 간부 빠졌없이 참석 바람
 3. 사도회 윌레회 : 저녁 8시30분
 4. 금년도 교무금 미납자 :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속히 완납 바람
- 지난주 봉헌금 : 163,830원 교무금 : 160,000원